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OVERVIEW

법무법인(유한) 지평(이하 지평)은 2000년 4월 3일 창립되어, 2019년 12월 31일 기준 230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창립정신은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며 동시에 윤리성, 공정성 및 민주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지평은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지향하며,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사회정의와 인권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01

법무법인(유한) 지평

PROFILE

명칭	법무법인(유한) 지평 (JIPYONG LLC)
본사위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대표변호사	이공현,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설립일	2000년 4월 3일

SERVICES AND SPECIALTIES

지평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별, 분야별, 산업별로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객과 함께 위기에 대응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송 건설 / 부동산 / 금융 / 자본시장 · PE / IP · IT / 해상 / 형사 / 헌법 · 행정 / 상속 · 가사 · 기업승계 / 조세 / 노동 / 보험 / 도산 / 회사관계 / 공정거래 / 언론 / 국제분쟁 / 민사 / 의료 자문(회사) M&A / 회사법 · 기업자문 / 해외투자 / 국제거래 / 도산 · 구조조정 / 조세 / 에너지 / 환경 / 바이오 · 제약 · 헬스케어 / IT / IP / 엔터테인먼트 / 공정거래 / 노동 / 공공정책 자문(금융) 부동산금융 / 프로젝트 파이낸스 / 구조화금융 / 인수금융 / 해외금융 / 금융규제 / PE / IPO / 자본시장

GOVERNANCE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파트너총회는 경영의 기본방침 및 지평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주요 경영 현안 등을 민주적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파트너총회에서 선출된 경영대표변호사와 경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위원회가 파트너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를 경영의 중요과제로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공현,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경영위원	김상준, 김지홍, 이승현, 정원, 정철
사회적가치위원회	김지형, 임성택, 김상준, 김지홍, 황인영, 김영수, 장품, 천춘미, 김용미, 권주연, 김현정

ORGANIZATION

지평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경영의 각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평은 공익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마케팅위원회, 문화소통위원회, HR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직원이 참여하여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SOCIAL IMPACT

지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익단체인 사단법인 두루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9명의 공익 전업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인문학 발전 위에 법제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평인문사회연구소 설립하였습니다. 지평인문사회연구소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주축으로 인문, 사회, 경제, 역사 분야의 연구와 출판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이 2012년 설립을 조력한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노동법에 정통한 법률가의 육성과 노동법에 대한 시민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의 지평을 넓히고 노동법 실무의 논의 수준을 발전시키며, 노동인권 분야의 문제 해결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법률가 및 노동조합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밀 아카데미, 해밀포럼, 노동판례연구 등의 교육과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EMBERS

지평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¹⁾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지평의 전체 구성원²⁾ 405명 중 전문가는 230명이고, 직원은 175명입니다. 로펌의 변호사는 구성원변호사(Partner)와 소속변호사(Associate)로 구분되는데 지평은 한국변호사 중 구성원변호사가 76명, 소속변호사가 87명입니다. 자격국가 별로 나누면 한국변호사가 163명, 외국변호사는 47명입니다. 국내 로펌 중 해외사무소가 가장 많은 만큼 지평에는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이 함께 일하고 있고, 외국변호사의 자격국가도 다양합니다.

1) 이 보고서에서 변호사,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위원 등 로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구성원을 '전문가'라고 표시합니다.
2) 이 보고서에서는 지평의 모든 전문가와 직원을 합쳐 '구성원'이라고 표시합니다.

GLOBAL REACH

지평은 일찍부터 해외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여 한국의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지평은 현재 11개 해외 및 국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고객 발굴 및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수행으로 고객의 해외 사업 진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업무에도 오랫동안 정진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원, 2019년 12월 31일 기준(단위 : 명)

		구성원변호사	76	230
전문가	한국변호사	소속변호사	87	
		외국변호사	47	
	기타 전문가	한국회계사	2	
		외국회계사	3	
		고문 · 자문 · 전문위원	15	
직원			175	
지평의 구성원 합계			405	

02

지평의 비전, 가치, 10대 과제

VISION

-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

VALUES

- 사람중심
- 진정성
- 진취성
- 윤리성

10대 과제

- 일을 잘하는 전문화된 로펌
- 모두가 주인이 되는 로펌
-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로펌
- 글로벌 로펌
- 공익활동을 가장 잘하는 로펌
- 윤리적인 로펌
- 자기 발전을 지원하는 로펌
- 여성을 존중하는 로펌
- 소수자를 배려하는 로펌
- 환경을 생각하는 로펌

03

2019 경영 KEYWORD



COMMUNICATION

내부의 소통, 고객과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

지평의 구성원은 소통을 잘 하는지, 빠르게 응답하고, 잘 경청하여, 제때에 설명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성찰합니다. 내부의 소통뿐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 모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COOPERATION

팀 플레이, 팀간 협력강화

혼자 고군분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팀 플레이를 하고, 팀 내부뿐 아니라 팀간 협력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합니다. 협력을 잘 하는 것, 협업능력을 높이는 것은 지평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CHALLENGE

도전하는 나, 팀, 지평

지평은 혁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지평을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평은 구성원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CHANGE

역량, 문화, 습관의 가시적 변화

가시적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평과 지평의 구성원들은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역량뿐 아니라 문화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습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겠습니다.

2020년, 지평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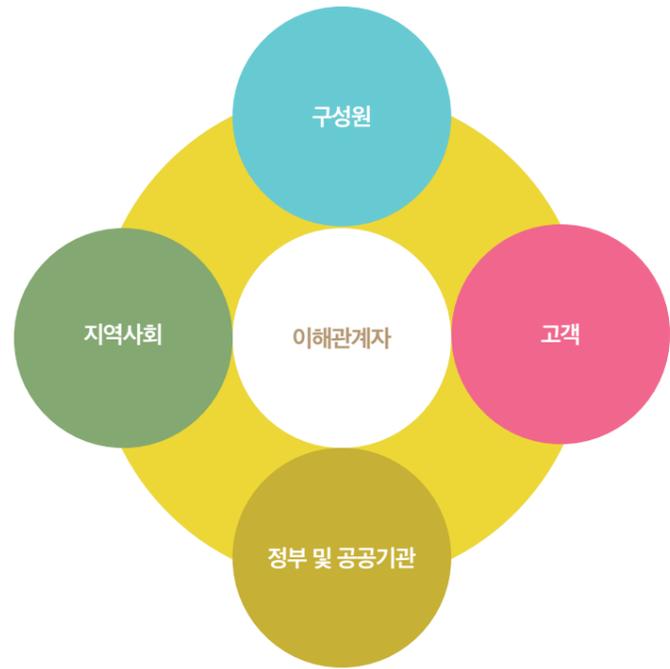
'자랑스러운 지평', '로펌 이상의 로펌', '세상에 하나뿐인 로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

이해관계자

지평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구성원, 고객, 지역사회, 정부 및 공공기관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이를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평은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내 웹진
- 노사협의회/예비구성원회의
- 팀별 워크숍, 동호회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 무료 법률상담

- 고객초청세미나, 뉴스레터
- 홈페이지, SNS
- 공익보고서, 「법률의 지평」 발간

- 투명한 조세정책
- 정부 및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 협회 및 외부 이니셔티브 참여



구성원

지평은 구성원의 책임있는 경영참여로 수평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근로자와 로펌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로펌을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와, 소속변호사 전원으로 구성된 예비구성원회의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채용 및 교육훈련, 안전·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구성원의 건강증진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19년 노사협의회와 예비구성원회의의 핵심주제는 업무시간 조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추구입니다. 이외에도 팀별 워크숍, 사내웹진, 지평 아카데미와 동호회 활동을 통해 구성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혁신제안제도'를 통하여 구성원들로부터 업무혁신방안을 제안받고, 이를 실현하여 성과를 내는 등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로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고객

지평은 고객과 함께 위기에 대응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뉴스레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객에게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며, 고객과 끊임없는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웹과 모바일 어느 환경에서나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였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회계 등의 전문분야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평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글을 엮은 「법률의 지평」을 발간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지평은 법률교육과 상담 등 지역 법률 수요에 다양한 방식으로 부응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및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지역사회 참여

-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인 애란원에서 법률 교육과 법률 상담 진행
- 탈북청소년들과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2세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래얼학교 후원
- 노숙인들의 자활지원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 빵을 구워 나누는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참여



정부 및 공공기관

지평의 변호사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회의 여러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로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9명의 전문가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위원회 또는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위원회 또는 자문변호사 활동은 총 172건에 이릅니다.

또한, 지평은 2019년 9월 24일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연차총회를 맞이하여 '지평 리셉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지평은 2019년에 한국 로펌 중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평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다양한 학회와 전문가단체 및 NGO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5

사회적가치 경영

지평 사회적가치 경영 선언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지평이 설립한 사단법인 두루가 2019년 9월 설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두루 설립 5주년을 계기로 지평은 국내 로펌 으로서는 처음으로 '사회적가치 경영 선언'을 하였습니다. 기업이 '경제적가치'뿐 아니라 '사 회적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사회적가치 경영'은 국내외 기업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 고 있으며, 특히 로펌은 「변호사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조직이므로 일반 기업보다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01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가치 경영을 위한 조직체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구축

04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의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

02

구성원의 채용, 법률업무, 고객관계, 법조사회 등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고 실천

05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두루를 장기적으로 공익전문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확대

03

매년 1개 이상의 사회적 과제를 설정하여 전사적으로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천

06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사회적가치위원회

지평은 2019년 9월 24일 한국의 로펌 중 최초로 '사회적가치 경영 선언'을 하고, 그 후속조 치로 사회적가치위원회(Social Value Committee)를 구성하였습니다. 지평의 사회적가치위 원회는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과 중장기적 실천 과제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가치 경영을 전사적 과제로 내재화하고 이를 실현·추동합니다. 또한 인사, 교육, 업무, 조달, 지배구조, 환경 등 지평의 모든 영역과 법조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사회적가치의 관점을 반영시키고 이를 정 기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컴팩트 등 국제 적 수준에 부합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성택 대표변호사
 위원 윤리위원회(김지형), 경영위원회(김상준), 공익위원회(김영수), 교육연구위원회(김지 흥), HR위원회(장품), 환경실천소모임(황인영), 행정지원팀장(천춘미), 인사교육팀장(김용 미), 경영지원팀장(권주연), 홍보팀장(김현정)

INTERVIEW

로펌과 사회적가치, 길을 묻다



임성택 사회적가치위원장

'사회적가치' 그리고 '사회적가치 경영'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지평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요.

경제적가치뿐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영이 사회적가치 경영입니다. 로펌은 법률서비스로 수익을 올리는 영리조직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 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자는 것이죠.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적·환경 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 회적가치는 인권, 환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 생과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을 포함합니다.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도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사회정의 실현을 본질 로 하는 변호사업의 본질상 로펌은 더욱 사회적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로펌도 공 익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을 해왔으나 이는 부수적인 일이었습니다. 사회적가치 경영의 의 미는 사회적가치 추구를 경제적가치 추구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보자는 것입니다. 로펌 의 지배구조, 채용, 법률업무, 조달, 고객관계, 법조사회에서의 역할 등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고 실천하자는 것이죠.

지평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구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매년 지평이 전사적으로 추진할 사회적 과제를 선정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정 사회적 문제가 선정되면 관련 법률 개선방안 연구, 입법 개선 활동, 법률상담과 자문, 기타 지원 등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루를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확 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지평은 구성원의 채용에서 차별을 없애는 것, 장애인, 경력단절여 성, 시니어 등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업무를 수행하는 것, 기존 의 법률업무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는 법률업무를 개척하는 것,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사 회적가치를 고려하는 것, 법조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 공익변호사 생태계 를 조성하는 것 등을 실천하려 합니다.

2020년에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단기 전략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2020년 처음으로 지평이 전사적으로 추진할 사회적 과제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린 pro-bono, 수용자자녀 인권개선과 같은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지역공동 체 발전 프로젝트, 우리 함께"가 채택되었습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새로 구성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자리잡게 하 고,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적가치 경영에 대한 공감을 얻는 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나아가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작년에 인권경영팀을 발족했습니다. 기업이 인권을 생각하고 향상 시키는 관점에서 경영을 한다는 것인데요.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 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기업 차원에서 주로 진행되지만 사기업에서도 인권경영이 도 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평 구성원을 향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상대로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컨설턴트가 변호사 에 관해 쓴 글을 보았는데요. 법률업무도 서비스를 파는 일이지만, 변호사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 이상이라는 글이었어요. "They are counselors, business advisors, advocates, sometimes psychologists, and often mentors."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무척 공감이 되 었습니다. 바야흐로 기업이 본질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변호사 또는 로펌의 본질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성 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사회적가치 경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